

# 동양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본 한국도시경관의 특성

김한배\* · 이규목\*\*

대구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ownscape in Perspective of the Oriental World View

Kim, Han-Bai\* · Lee, Kyu-Mo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aegu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City University

### ABSTRACT

It has been generally agreed that the city form especially in the preindustrial age resembled their own world view, either in the western or the eastern cultural sphere. So, we aimed to re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oriental world views compared with the western one, in order to find the relative nature of the Korean townscapes.

It is said that the both world views(of western and oriental) are composed of the contrastive binary concepts in common, but there seems to have been nearly contrary differences in these two world views. Whereas the former was based on the passively segregational and oppositional dualism, the latter, on the dynamically harmonious and complementary dualism, called generally as 'Yin(陰) and Yang(陽)'.

Thus, the oriental world view can be thought as the 'philosophy of the relationship', which aim to unify the dualism ultimately with the help of this relationship. So, we can assume a certain third and intermediate concept between these dual concepts of the world view, which can unify these two into the one holistic whole. And the focuses of the most traditional oriental philosophies were concentrated on this, so called, 'the third concept', namely Taoistic 'Tochu(道樞)', Buddhistic 'Kong(空)' or Confucian 'Chung(中)'. And this triple concept, including the third one, of the oriental world view revealed a more concrete form of the cosmological relationship, as the triple structure; 'Heaven(天), Earth(地), and Man(人)', in which the 'Man' is thought as the middle or the center of the world.

In this manner, we could found this oriental 'triple world view' was revealed in the real topology of most places in the Korean traditional city and the whole townscape itself. So, in the scale of houses and the roads around them, we can construe the 'Maru(a central board-floored room)' and the 'Madang(a inner court)' as the 'third and intermediate space

(中)' between the interior space(陰) and exterior space(陽) in the former, and between the private house(陰) and the public residential road(陽), in the latter. And in a district or a city scale, the 'back alley' or the 'main strip' can play 'a unifying role(中)' between the connected buildings(陰) and the main street(陽) in the former case, and between the dual parts (陰, 陽) of the city representing the contrary social classes and the contrastive visual landscapes.

So, we insist that this 'triple world view' represented in the townscape can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townscape. And this third intermediate spaces, which generate the active social contact and the harmonious relationship among the people, can be the most important cues, as the central plac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townscapes even in contemporary circumstance, which inherits its spatial and social frame more or less from the preceding one.

## I. 序 論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반영이다(Tuan, 1974, 1977). 역사 이래로 동서양의 양대 문화는 각기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져 왔으며,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다른 환경인식과 그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이룩해 왔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하나의 도시환경 또는 도시경관의 이해에는 그 근저가 되는 사상적 기저 또는 세계관의 특성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하여야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세계관들의 특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동양적 세계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환경인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한국도시경관을 해석할 수 있는 가설적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관'이라는 것은 한 문화권의 유구한 문화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의 올바른 파악을 위해서는 보다 깊이있는 사상사, 문화사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여기서는 연구의 특성상 이미 공리화된 양대 문화의 세계관적 특성을 비교, 재음미하고 특히 한국도시경관의 본질적 특성을 이러한 동양적 세계관에 비추어 파악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그러므로, 먼저 기존의 사상사 연구 문헌들을 위주로 서양과 동양 세계관의 구조적 차이를 검토한 다음, 특히 동양의 대표적인 각 사상들(음양오행, 샤머니즘, 도교, 유교, 불교 등)

에 나타나는 구체적 세계관의 공통된 특성을 파악해 보고, 최종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한국 도시경관의 지배적 특징들을 이러한 동양의 공통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그 일치점을 찾아냄으로써 한국 도시경관 연구에 있어서의 하나의 새로운 시각설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경관'은 "우리가 보는 것의 총체(the unity we see)"로서 좁게는 다분히 형식미학적인 '풍경(scene)'과 같은 뜻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생태학적 측면의 '환경'과 혼동되기도 하며, 다분히 국지적, 체형적 현상인 '장소(place)'와 혼용되기도 하나(Meinig edit., 1979, pp.2-3), 문화경관으로서의 도시경관의 연구는 이들 모두 간의 복합적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의 공간 형태와 이로부터 야기되는 시각적 체험 및 그 안에서의 주민의 일상적 도시생활과 그 내용적 의미까지도 포괄하는 다차원의 관계성을 다루는 것(art of relationship)이다(Burke, 1976; Cullen, 1971). 특히 한국의 도시경관은 대부분 전근대로부터의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도시형태 원형에는 당시 도시 영조집단들의 지배적 세계관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 전근대도시경관을 1차적으로 구성하는 물리적 공간형태 및 그 안에서의 활동패턴과 공공의미상의 특징 등 한국적 도시경관 원형의 총체적 특성을 당시 사상들에 나타나는 공통적 세계관과 대응시켜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태도는 종래, 도시경관을 물리적 배치나 시각적 구성 또는 이미지 창조로 보는 분석적, 외재적 관점이기 보다는, 도시경관을 집단적, 문화적 의미의 반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다 총체적, 장소론적 입장(이규목, 1982, 1992)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다소 연역적이기는 하나, 1차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전근대사상에 나타나는 세계관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동양적 세계관의 상대적 특성을 찾아내고, 다음으로 한국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 동양사상들에 나타나는 세계관의 공통된 특성을 문헌연구를 위주로 밝혀내며, 이어서 한국 전근대의 대표적 도시들에 나타나는 공통된 대표적 경관특성을 지도 및 문헌들을 통해 정리하여, 이러한 경관적 특징들과 동양적 세계관의 특성 간의 대응관계를 통해 한국도시경관 원형의 표면과 이면상의 특징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 부언하자면 여기서 사상사적 내용은 필자의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동양철학 전공자들의 견해들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고, 도시경관적 내용은 특히 조선시대 서울, 전주, 대구 등을 중심으로 그 형태분석을 지도자료에 의존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도시의 기본적 경관구조를 규정짓는 중심가로의 형태에 한정하여 그 경관성 파악의 단서로 삼았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 II. 서양과 동양의 세계관 비교

철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계관(world view)'이란 "세계 전체에 대한 통일적 이해"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를 "자연연구에 의해 얻어진 자연 또는 세계에 관한 경험적 전체"로서의 '세계상'과, 세계를 그 형이상학적 근거로부터 설명하는 '세계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가 객관적, 상대적인데 비하여 후자는 주관적, 절대적인 것으로(강영선 외 편, 1988), 앞서의 '세계상'이 과학적, 분석적 세계관을 지칭함으로써 서구문화권에서 주로 거론되어 왔던 세계관과 가깝다고 본다면, 후자인 '세계관'은 형이상학적, 직관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동양의 세계관에 보다 가깝다고 보인다.

서구의 세계관의 경우, 탈레스(Thales, B.C.624-546)를 시조로 하는 그리스 밀레토스 학파의 우주 일원론(물을 우주의 근원-arche-으로 봄)과 엠페도클레스(Empedocles, B.C.490-430) 등으로 대표되는 다원론(물, 공기, 불, 땅이 근원이 된다고 봄)이 세계관의 시조를 이룬다. 이러한 소박한 우주구성의 요소론들은 그 이후 플라톤(Platon, B.C.427-347)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322) 대에 이르러서는 보다 심오한 존재론인 플라톤의 '관념(idea)'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ousia)'론의 대립적, 이원적 관점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개별적 현상들 이전에 보편적인 관념적 본질이 우선한다는 세계관과 개개의 현상 속에 본질이 내재한다는 이러한 대조적 세계관(철학교재편집연구회, 1982)들은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각기 합리적 이성과 경험적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rationalism)'와 '경험론(empiricism)'의 양대 대조적 인식론으로 계승, 발전되었으며 이 양자가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 까지 정반합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소위 서구의 과학적 세계관 및 그에 따르는 환경연구 역사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Broadbent, 1990) 동양에서도 이러한 이원적 세계관이 전통적으로 있어왔으나 그 성격이 서구의 그것처럼 요소적 분리적 사고이기보다는 보다 유기적 통합적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고 서구의 이러한 '이성' 위주의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자연을 낱알의 궁극적 요소로 나누어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결합 등으로 세계를 설명하려는 '원자론적(atomic), 인과론적' 입장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면, 동양은 이와 대조적으로 자연을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로 보고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유기론적 세계관'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김용운, 김용국, 1984)

즉, 서구사상은 진선미를 분류시켜 그 각각을 절대가치로 보려하며 서양의 학문들은 이에 따라 논리학(logics)과 진(truth), 윤리학(ethics)과 선(good), 그리고 미학(aesthetics)과 미(beauty) 등으로 분류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지만, 동양의 사상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덕'을 절대가치로 보고 그 덕 안

에 진선미를 종합시켜 해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서양의 분리적 사고는 또한, 현상을 사고하는 쪽(subject)과 사고되는 쪽(object)로 양분한 다음 그 상대관계를 대립(opposition)으로 보고 그 대립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하면서 정반합이라는 발전론을 전개하려 하는데 반해서(윤재근,1993), 동양적 세계관은 “대상을 실제라기 보다는 상관적 사건으로 인식하여 이들 사이의 변화를 늘 관찰자(인간)를 포함해서” 보려한다(Needham,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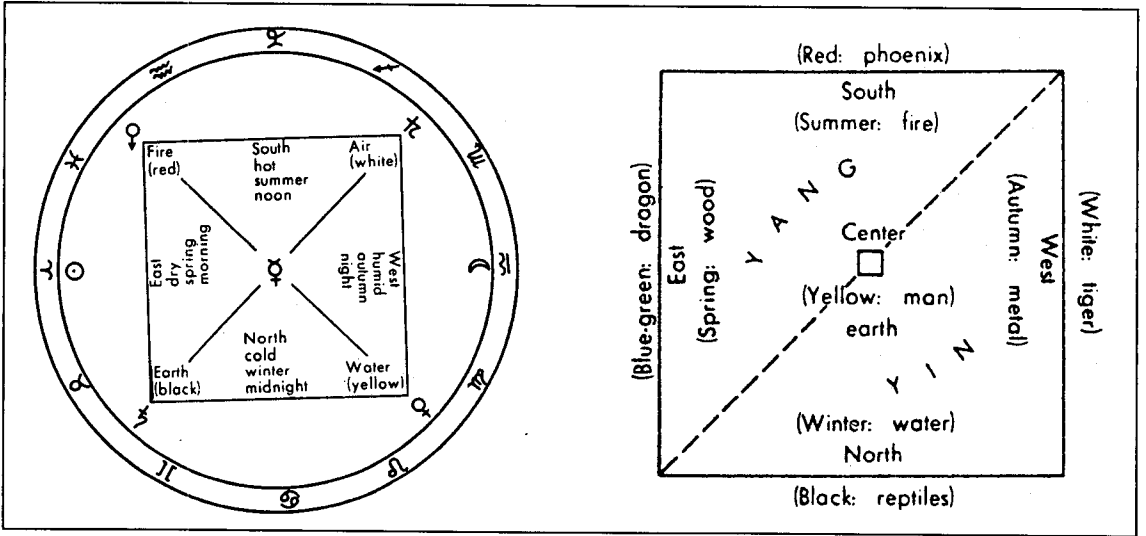
동양인들은 이러한 인간을 포함하는 ‘운동과 변화’(易)를 세계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변화과정 속의 지속되는 유형(=패턴), 즉 ‘순환성’으로 파악된 패턴을 ‘道’ 또는 ‘氣’로 보았고 이를 ‘陰陽’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도식화시켰다. 이러한 음양론적 사고는 고대 이래 여러 사상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동양적 세계관의 뿌리를 이루어 왔다. 음양론을 기초로 하는 이러한 중국계의 이원론은 투쟁과 대립이 아니라 타협과 조화를 기저로 하는 이원적인 무환순환론으로, 부정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관도 없으며(김용운, 김용국,1984) 따라서 역사진전에 따라 동형반복적으로 변용되어 왔다. 즉, 서구의 세계관이 ‘실체의 실재’를 찾아보려고 한데 대해서 동양의 세계관은 ‘관계의 실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근본적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고(이강훈, 1989), 서구의 변화관이 역사발전론적 변화라면 동양의 변화관은 우주생성론적 변화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타협과 조화를 기저로 하는 이원적 관계를 ‘相補性’이라고 볼 수 있다(이규목,1987). 이러한 ‘인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상보적 이원론’의 세계관은 그 환경인식상의 특성으로 보아 최근의 ‘총체적(holistic)’, ‘인간주의적(humanistic)’ 접근(Cloke,1991)과 보다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세계관은 보통 ‘우주관(cosmology)’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을 포함하는 지상세계의 질서를 우주세계와 일치시켜 해석해 보려고 했으며 그 사유의 결과를 어떠한 ‘原型的의 圖像’을 통해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대우주-지상세계-인체’의 구조동일시의 태도에 있어,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표 1〉 서양, 동양의 세계관 비교

	서 양	동 양
전반적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립적 이론적</li> <li>• 대상론적(분리적)사고</li> <li>• 직선적 역사관(변증법적 발전)</li> <li>• 분석적 이성 중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보적 이원론</li> <li>• 관계론적(융합적) 사고</li> <li>• 순환적 역사관(동형반복)</li> <li>• 총체적 직관 중시</li> </ul>
구체적 사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리스의 이원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톤의 관념론</li> <li>-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li> </ul> </li> <li>• 근세 이후의 과학적 이원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주의(데카르트)</li> <li>• 합리적 이성 중시</li> <li>• 정신(관념)의 실재 확인</li> <li>• 선천주의, 보편주의</li> <li>- 경험주의(로크)</li> <li>• 경험적 이성 중시</li> <li>• 감각의 우위 확신</li> <li>• 후천주의, 상대주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시 샤머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원적 관계론</li> </ul> </li> <li>• 음양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보적 이원론, 다원론</li> </ul> </li> <li>• 도가, 불가, 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립적 이원의 융합</li> </ul> </li> </ul>

극동지역의 문화권에서는 크게 “우주의 구조와 인간의 신체구조를 동일시해 보려는 태도와,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고자하는” 양대 태도로 나타난다. 앞서의 태도는 지상의 경관에 인간의 신체구조의 ‘앞, 뒤, 좌, 우, 위, 아래’에 따라 기본적인 방위(cardinal point)를 설정하고 각 방위마다 대조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인간을 그 중심 위치에 놓고 주변세계를 ‘음’과 ‘양’의 세계로 양분하여 이 양대 세계 속에 기본적인 네 방위와 계절, 물질 등을 분류 배속시킨 중국인의 세계도상에서 그예를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도상에는 각 방위들을 천체의 행성들과 그



(자료 : Tuan, 1977, pp. 94~95)

(그림 1) 중국과 그리스의 고대 세계관 도상

의 신들에 배속시키며 이들 방위에 계절과 물질들, 물리적 현상들을 연관시키되, 이에 상대적으로 '인간의 위치는 배제'되어 있어 인간과 분리된 객관적 실체로서의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Tuan,197 ; (그림 1 )참조).

### Ⅲ. 동양의 각 사상에 나타나는 세계관의 특징

#### 1. 根源思考로서의 陰陽五行

동양 고대의 사유체계인 陰陽과 五行의 사상 중 보다 먼저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음양사상은 일반적으로 B.C.3,000년 경의 「河圖」와 「洛書」에 그 기본사상이 표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중국 고대 문헌인 「詩經」에 그 어휘가 최초로 등장하고 있고, 그 후 「周易」 「繫辭傳」에 「一陰一陽之謂道」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으며, 전한초 「禮記」에 전문적 복합어로서의 '음양'으로 결합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시초에는 지형학적 의미로 사용된 듯하며(그늘진 언덕과 양지바른 언덕, 강의 북쪽 뚝과 남쪽 뚝 등) 그 이후 자연현상, 사회현상 등을 포함하여 상호보완 관계

를 나타내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Pokert,1974). 이러한 음양설은 나중에 道家의 철학 속에 거의 전적으로 흡수되고 후일 道家나 儒家의 공동재산으로 계승되어(김용운, 김용국, 1984), 동양사상의 일관된 근저적 세계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음양설 이후에는 오행설이 생겨서 이와 결부되었고, 宋代에 이르러 太極思想이 도입되면서 소위 1-2-5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최창조,1984). 오행설은 다원론이고, 음양설은 이원론이며, 태극설은 일원론인 바 다원론은 이원론에 흡수되고 이것은 다시 일원론에 귀입하는데 이 철학의 진면목이 있다.(조헌영,1946을 이규목,1986에서 재인용) 이러한 음양오행설은 사물을 분류하며, 사물 사이의 관계를 따지고 체계적 인식을 구성하려는 태도로, 고대 전국시대 말기 이후 줄곧 중국의 자연철학에 있어서의 기본적 사고 패턴이었다. 음양철학의 기본사상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易」 「繫辭傳」은 도가의 '氣'의 철학을 원형으로 삼은 것으로서, 이러한 철학에서 두드러진 '관계론적' 특성은 '天人相關의 천체생물학적 사고'라 할 만하다. 이 중 五行說은 그리스의 五元素說과도 유사하나, 원소설이 '본체'에 관한 것인데 대해서 오

행설에서는 사물 사이의 ‘관계’, 즉 사물 사이의 ‘상대적인 성질’을 분류하는 것을 주제로 삼는다. 또한 여기서의 ‘行’이란 본래 정지상태의 기본물질(원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운동을 하고 있는 일종의 힘이며 오행의 순환관계에 관한 ‘相生’, ‘相剋’ 등의 개념은 요소 간의 연쇄적, 동적 관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개념들이다(김용운, 김용국, 1984).

일종의 가설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음양오행이나 이에 기반한 것으로 보는 풍수설이 중국 도래가 아니라 한국 고유의 자생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 바 또한 있다. 즉, 경주 感恩寺址(서기 682년 창건)의 초석에 새겨진 태극문양은 주자의 태극도설보다 약 600년이나 앞선 것이라던가, 고구려 고분에 나타나는 사신도는 분묘내부의 그림으로서 동양 최초의 것이라는 것, 신라 묘제의 12지신상은 주변국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것이라는 것 등이 이러한 설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이다(앞책).

## 2 동양사상들에 나타나는 세계관의 특징

고대 중국의 정치에서는 巫覡문화(샤머니즘)가 핵심적 지위를 차지했었으며 이는 무력과 함께 권력의 유지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張光直 저, 이철 역, 1990).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고대 제정 일치 시기에 있어 이러한 현상은 비슷하였으며, 이러한 무격문화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문화 핵심으로 남아있다고 보인다(류동식, 1975). 老莊 사상과 神仙術을 결합시킨 도교는 초기부터 이러한 무격신앙도 포함해 왔던 포괄적 종교이며(酒井忠夫 저, 최준식 역, 1990), 이는 도가적 철학이 무격문화와 마찬가지로 ‘大地的(ethnical)’ 신앙의 성격을 갖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김용운, 김용국, 1984).

儒家思想은 최초 漢나라 때 성립된 치세의 사상으로 위진남북조 및 수·당 대에는 道, 佛 兩家의 사상에 압도되었다가, 북송에 이르러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다.

즉, 동양 내지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의 구조는 무격신앙을 핵심으로 하고 그 위에 도가, 불가,

유가의 사상이 함께, 음양오행이라는 주축을 통해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 중 무격신앙의 경우,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宇宙木, 宇宙山 신앙, 蘇塗 등은 우리나라의 보편적 샤머니즘의 세계관이며 특히 이와 관련된 天符經의 삼원설(天印은 圓, 地印은 方, 人印은 角) 안에도 음양오행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보인다(권태훈, 1989). 그 이후, 신라의 三山五岳 사상, 고려의 圓丘(天神), 社稷(土地神), 太廟(祖上神)의 제사 등도 무교적 유습이라 할 만하며(류동식, 앞책) 이러한 관념들의 공통된 특징은 주로 음양의 ‘이원론’ 대신에 ‘삼원론’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道家の 경우, 老子의 道德經 첫머리에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에서 알 수 있듯이 ‘三’은 陰陽의 융합을 뜻하며(만물은 음을 걸머지고 양을 품으며 음양조화의 ‘氣’로 인하여 성립한다), 道의 작용(道之動)은 되돌아 가는 것(反者)으로서(윤재근, 1993) ‘三’에서 ‘一’로 돌아가는 순환론적 사고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장자의 齊物論에 있어서도 이것과 저것이 서로 대립을 없애는 경지를 ‘도의 중심(道樞)’이라고 하였으며(彼是莫得其偶謂之道樞), 이를 노자는 抱一, 또는 장자는 齊物이라고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다(윤재근, 1993). 이러한 면으로 볼 때 도가사상 또한 음양사상을 그 바탕으로 하였으며 3차적 개념을 통하여 이의 융합을 지향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가사상에서의 구체적 이상향으로 三神山(蓬萊, 方丈, 瀛州)과 오악을 숭배하던 것(酒井忠夫, 앞책) 등도 음양사상의 변형된 삼원론적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유가사상이 주장하는 인간중심주의는, 서구사상의 ‘인본주의(humanism)’가 인간중심적인 물질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德性’(공자의 中正)을 통해 우주와 인간의 어울림을 표현하려는 것이다.(윤재근, 1993) 즉, 性理學에서 다루는 자연은 순수한 과학의 대상이 될 현상세계가 아니라 주관, 즉 인간의 덕성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우주’로서, 朱熹(朱子, 1130-1200)는 ‘理’ 또는 ‘太極’을 우주의 본체로 삼고 그 밑에

‘氣’로서의 음양과 오행을 배속시킴으로써 음양의 이원론을 ‘태극’을 통해 일원화하려 하였다(김용운, 김용국, 1984). 이는 ‘인간은 땅의 ‘地氣’를 밟고 서서 ‘天理’에 따라 산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샤머니즘적 ‘天, 地, 人’의 삼원적 세계관과 상통하여 전통적 동양 내지는 한국의 인간관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었다(이규목, 1987).

유가와 도가에서 사고논리의 바탕은 음양론과의 相應에 있지만 佛家의 사유는 그 바탕의 논리를 ‘緣起論’, 즉 ‘因果’의 상응에 두고 있다. 모든 것은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체도 아니며 서로 의존한 조건에 따라 존재한다고 보는 것으로서 이러한 연기론적 사고의 핵심을 ‘不二’라고 한다. 이 ‘不二’는 이원상대의 세계 인식 즉, 주객, 진위, 미추, 가치와 무가치의 분별 등을 부정하는 것으로 ‘空’사상의 또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윤재근, 1993).

〈표 2〉 동양사상들의 이원론과 삼원적 융합개념

	이원관	융합개념
원시 샤머니즘	天印(圓), 地印(方) 圓丘(天神), 社稷(地神)	人印(角) 太廟(祖上神)
도가	道生一, 一生二(三生萬物)	道樞 또는 抱一(〈노자〉), 齊物(〈장자〉)
불가	有無, 主客, 眞僞	不二(空)
유가	仁, 義 陰과 陽(氣)	中正(〈공자〉) 太極(理)

즉, 이러한 동양의 각 사상에 나타나는 有無, 空色, 仁義, 理氣, 情理 등등은 동양적 이분논리에 속하나, 이러한 이분논리는 분리 분석보다는 상호 포섭으로 융합하는 경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불가의 不二, 노자의 抱一, 장자의 齊物, 공자의 中正 등은 이러한 사고의 융합논리를 표현하는 제 3의 개념들이라 할 만하다(윤재근, 1993). 이러한 관계적, 융합적인 제 3의 개념을 통틀어 동양사상에서는 ‘氣’로 보았으며(김용욱, 1985), 김지하(1984)는 이를 동학사상과 연계시켜

‘生命’으로 보기도 했다. 어쨌든, 이러한 동양사상에 나타나는 세계관의 특성은 대부분 이원적 세계를 인정하면서 이를 일원적으로 융합하고자하는 것으로 이의 근간에는 음양오행적 사고가 깔려 있으나 이러한 제 3의 중간적, 중심적 융합개념을 포함시켜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삼원론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 IV. 동양적 세계관과 한국도시경관의 특성

전술한 바와 같이 고대로부터 전산업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모형과 그들의 도시 및 주거 내지는 그들의 신체까지를 일치시켜 보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즉 대부분의 고대도시들은 그들의 도시형태를 ‘天空의 原型(celestial archetype; Eliade, 1976)’이나 ‘小宇宙(microcosm; Tuan, 1977)’로 생각하여 조성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왔는데 이들은 다름아닌 그들의 독특한 세계관의 투영으로서 도시를 보고 그에 따라 도시경관을 조성해 온 태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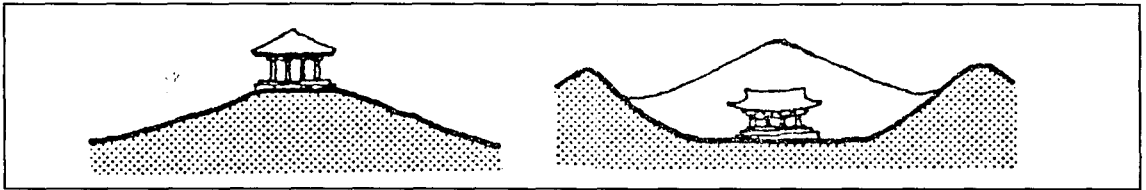
한국은 고대로 여러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왔다고 생각되는데 고대 초기에는 원시 무격신앙(샤머니즘)이 山岳신앙과 더불어 지배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의 神市와 경주의 도읍형성의 기원에 대한 설명에서 이러한 샤머니즘적, 도교적 산악신앙의 삼원론적 세계관(三神山, 三山五岳 등)이 작용한 것을 여러 차례 암시하고 있다. 이후, 특히 신라를 포함한 가야제국들의 경우 서역 또는 인도와의 문화적, 인적 교류가 불교의 유입과 더불어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善德 4년(635) 이래 인도의 密敎가 전해진 이후, 이의 현세적인 비법 사용 때문에 토착의 주술적인 무격신앙과 융합되어 신라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의 불교적 세계관(須彌山 중심의 동심원적 세계관)이 경주의 분묘와 도시시설의 배치에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물증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통일신라를 전후한 시기의 도시의 패턴은 고신라시대의 主宮城址(추정)를 중심으로 하여, 일종의 밀교적 曼

茶羅와도 같은 同心圓과 方形的 결합을 보여주고 있는데(Lee, Kyu-Mok and Kim, Han-Bai, 1992), 이는 天圓地方的 개념과도 통할 수 있어 인도의 세계관의 陰陽的 轉移로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고대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천문관과 자연관을 지배하던 음양오행의 사고는 실제로 그들의 도시, 마을 나아가서 집의 조성에는 물론 신체현상의 해석과 관리에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결국 이러한 음양오행적 사고는 극동 지역에서 자연관 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규범으로도 폭넓게 적용되었으나 특히 도시환경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풍수설과 주례고공기의 원리이며 이 중 고공기는 통일신라 이후, 풍수설은 고려조 이후 우리나라 도시형성에 본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風水思想이 원시적인 地相術의 단계를 벗어나 체계화된 것은 음양오행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부터였다. 즉, 「河圖」, 「洛書」(BC.3,000)에서

비롯하여 「書經」의 「洪範九疇」와 그에 따르는 「周禮」의 「考工記」(BC.1,500)를 거쳐 風水說(BC.500-200)로 이어지는 동양적 세계관은 모두 음양오행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左(廟)右(社), 前(朝)後(市) 및 左(青龍)右(白虎), 南(朱雀)北(玄武) 등 考工記의 도시조성 원칙들과 風水입지 상의 방위개념들은 대부분 二元對照의 짝들로서 陰陽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들이며, 여기에 중심으로서의 主宮城과 穴을 포함시켜 생각하면 中心과 四方경관의 五行적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들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동양은 특히 이러한 관계론적 사고에 따라 인간정주의 기본적 패턴에 대조적 성격을 보여왔는데, 풍수설에 의한 주변 자연지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양의 '대상적 사고'와는 대조적인 '관계성 지향'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서양과 동양의 환경관 비교

풍수사상이 음양오행의 경관적 적용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 주례고공기에 있어서도 주로 도시 내부 중요한 공공시설의 배치와 결부된 원칙들은 오행의 원칙을 빌어 표현되고 있다(중앙의 궁궐을 중심으로 左廟右社, 前朝後市의 원칙). 성인수(1983)는 이러한 환경인식의 오행적 형식을 수직적 공간, 시간개념(전세, 현세, 내세)으로까지 확대하여 '天上界(五星座)→天界(五帝座)→人界(五明堂)→地界(五明堂)→地下界(五方天)'의 '立體五行論'으로 추론, 이를 한국 靑岩里寺址와 불국사의 배치개념의 해석에 적용시킨 바 있는데, 이는 '天上模型의 투영으로서의 지상세계'라는 고대도시의 세계관을 한국건축공간의 해석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성인수, 1983)는 결론적으로, 종래 주역의 1→2→4→8 체계

는 인간을 제외한 외부세계의 분류체계이며, 이에 인간을 중심으로 포함시킬 때, 1→3→5→9의 체계로 변화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박시익(1992)도 한국 고유의 우주관은 天地人, 三神山, 三符印, 三太極, 三京五部制 등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3,5의 체계, 즉 三神五帝의 체계라고 주장하여, 이를 역시 한국의 건축공간의 해석에 적용코자 한 바 있다. 이러한 二元論과 三元論, 五元論의 사고의 기본적인 차이는 궁극적으로 이원적(또는 이의 확대개념으로서의 사원적) 세계의 중간매체로서의 '인간'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앞의 3장에서 동양사상에 공히 나타나는 二元融合을 위한 제 3의 개념들(불가의 空, 도가의 道, 유가의 中)로서 설명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제3의 개념은 인간이 관련된 환경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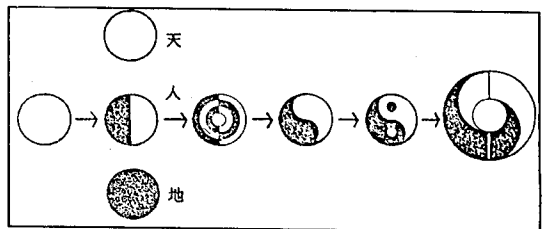
에 있어 심오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이중적 구조를 가진 환경의 모습은 이 사이에 인간을 중심적 위치로 포함시킬 때, 객관적, 대상적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의 지각과 체험, 사고와 행동이 개입되는 '장소적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이규목, 1987).

黒川紀章(1978, 1986)은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서구도시들에 있어서의 공간의 '二元的 단절(견고한 mass와 void 간의)'과 동양도시의 '共存的 공간성'을 비교한 바 있다. 즉, 그는 전술한 동양사상에서의 이원융합적인 중간적 개념들(불교의 空, 노자의 無, 장자의 玄, 天地人의 人)을 인용하면서, 일본을 포함하는 동양도시의 경관적 특징을 이러한 중간적 개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간영역으로서의 '길'공간의 역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일본도시 내의 상호이질적인 부분공간들은 이러한 "길공간의 상호침투적 성질"에 의해 융합되어, 보다 총체적인(holistic) 풍부한 重層的 도시경관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현대도시 내의 異質的, 兩面的 공간들을 共存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이러한 경계공간(사이공간 또는 길공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경관에 있어서의 중간영역 또는 경계공간이라 함은 이러한 길 뿐만이 아니라 도시 주위의 산이나 고개, 삼림, 하천(다리), 경사지와 평지의 경계 등도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계공간의 경관적 성격은 경계 양쪽 영역 간의 상호관계성을 표현하게 된다(坂坂陽一郎,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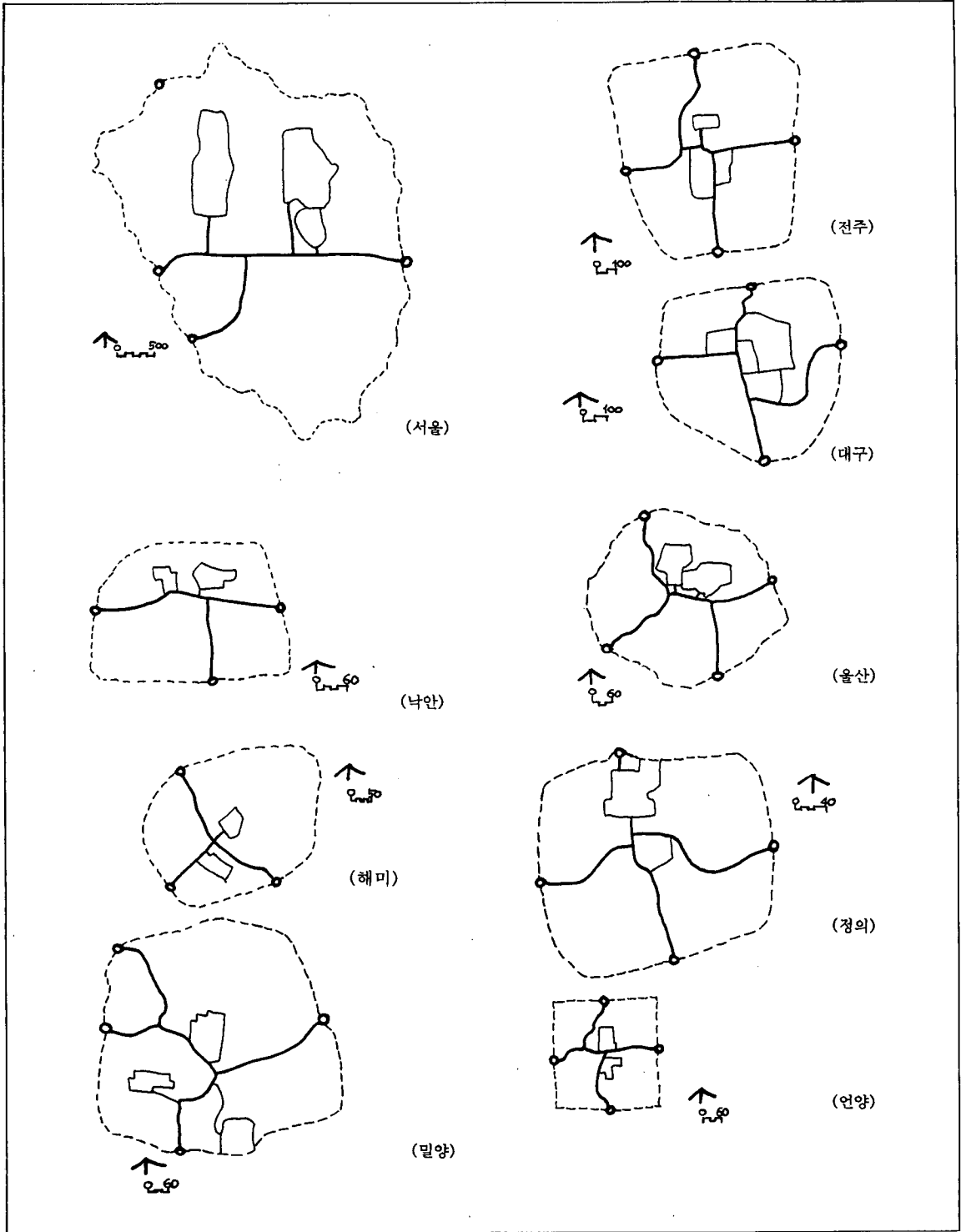
실제 이와 같은 도시경관에 있어서의 이원성, 삼원성 또는 다원성이라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 도시패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예를 들더라도 '城内'와 '城外(城底十里)'는 그 사회상과 경관적 측면에서 대조적 측면을 보이며, 성내에서도 '北村'과 '南村'은 마찬가지로 음양 이원적 관계를 보인다. 즉, 삼원성이나 다원성은 어찌보면 모두 이러한 이원성의 외연확장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左廟右社'란 원체 좌우의 이원개념으로 가운데의 궁궐을 중심으로 보면 삼원개념이 될 수 있고, 이와 함께 '前朝後市'의 개념을 포함하면 중심과 사방의 오원개념 즉, 오행설의 공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오행개

념은 또한 서울의 五宮과 五部는 물론 각 방향의 성문과 성외의(또는 성과 중첩되는) 內四山, 外四山까지도 연결되는 중첩된 다원적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다.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들 이원적, 다원적 경관영역의 경계는 보통 물리적 경계(開川-淸溪川-, 城門)를 지나 이들은 늘 공공시설 지역(六曹거리-세종로-)이나 공적인 상업지역(종로 六矣廳, 성문밖 場市)과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찌기 黒川(1978)은 "서양의 도시에 길은 없고, 동양의 도시에 광장은 없다"고 하면서 동양의 도시에서는 '길(중심가로)'의 로선을 따라 공공시설들을 분산배치함으로써 이 길로 하여금 축제와 시장기능 등 서구의 광장이 하는 바와 같은 공공적 역할을 하게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동양, 특히 한국의 도시들은 서구의 도시들과 같은 동심원적 형태를 보이기보다는 이러한 길(중심가로)을 중심으로 하여 분화된 남북, 또는 동서의 이원 또는 다원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중심가로의 성격은 보통 정치적 기념성을 띄기도 하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는 시장기능을 겸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서울의 宗路(雲從街), 全州의 西門路, 大邱의 西門, 南門路 등은 모두 이러한 시장기능과 공공행사의 중심적 장소였으며(서울시, 1977, 1978; 전주시, 1983; 대구시, 1973), 이들 중심가로를 통하여 성내의 상하이원적 도시주민들 간의 접촉을 촉진시킴으로써 도시경관을 체험적 차원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일원화시켜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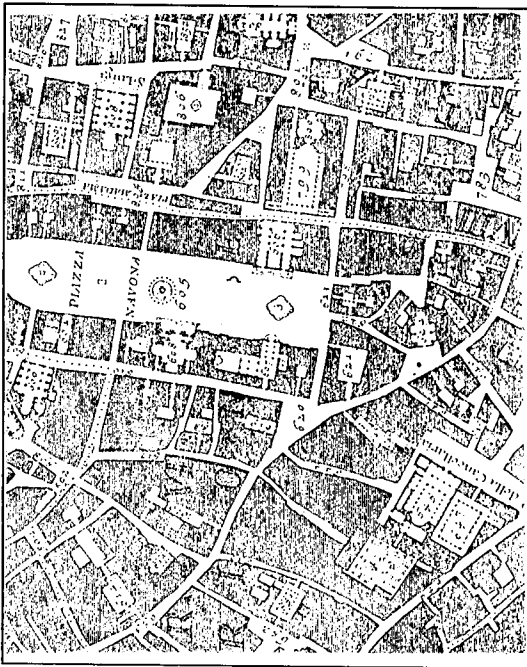
나아가, 동양의 이원적 세계관은 太極圖像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음과 양 각각의 안에 반대편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이는 圓心을 중심으로 늘 회전하는 모습으로 서로 간에 역전될 수 있는 가변적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태극도상의 중심과 가변적 역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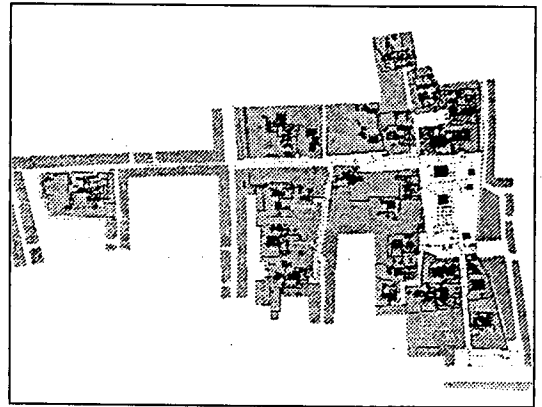


<그림 4> 한국 전근대도시의 중심가로 형태(자료:측량지도 사용 필자작성)



• Nolli의 로마평면

(자료 : Hesselgren 11975, p.155)



• 일본의 도시평면

(자료 : 横文彦, 1980, p. 42)

〈그림 5〉 서양의 이원대립적 도시형태와 동양의 중층적 도시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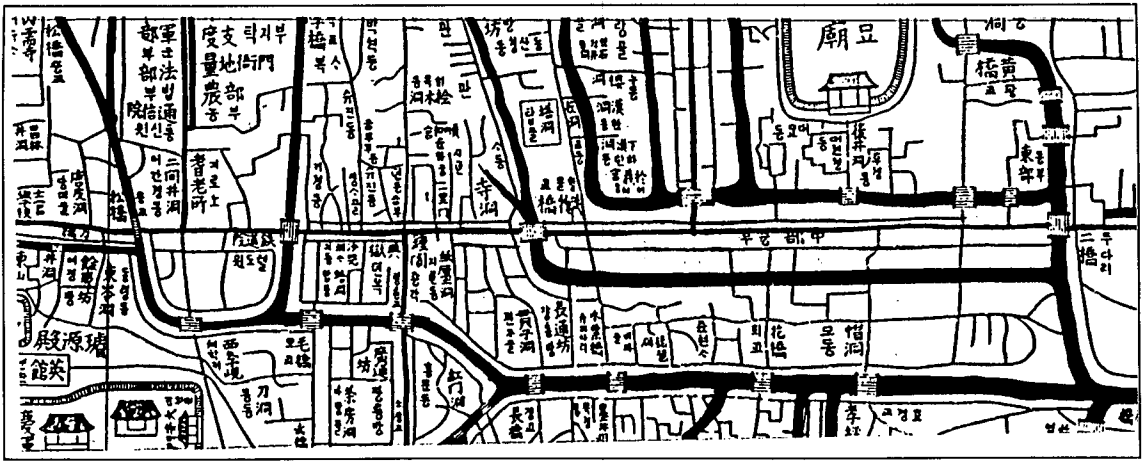


• 한국의 도시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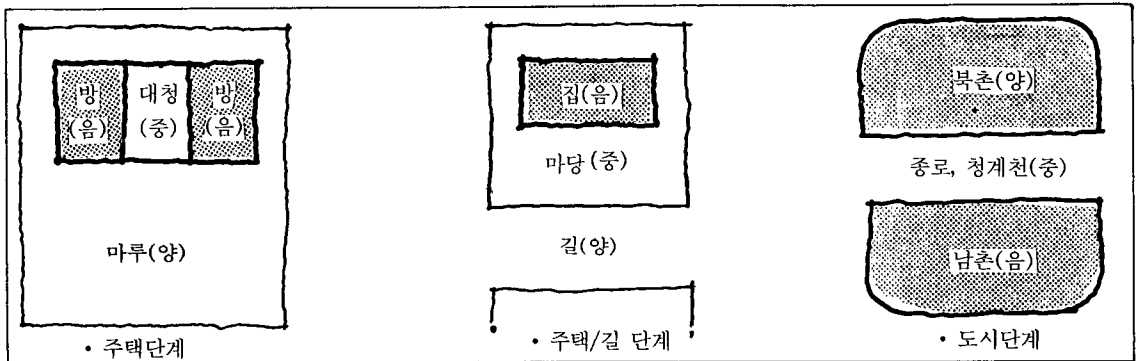
(자료 : 김진애, 1991. p.86)

즉, 이러한 중심(중간영역)의 존재를 전제로 역전, 변화하는 세계관은 현대 구조주의의 靜態的二元性(binary opposition)과의 근본적 차이점이며, 이러한 양극 사이의 중심요소 즉, 이원성을 융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요소를 물리적 환경면으로 볼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三者의인 중심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삶이 활발히 교류되는 보다 公的인 ‘만남의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전술한 조선조에 성립된 한국도시들에 있어 길의 형태는 현대도시의 직교형 도로패턴과는 달리, 지형적 조건과는 별도로 ‘어긋나는 굽은 축’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로망의 유기적 형태는 마치 ‘태극’의 형태와도 같이, 구분된 도시영역 간의 형태적, 시각체험적 융합을 시켜왔다고 보인다.(〈그림 4〉참조)

실제의 미시적 공간형태상으로도, 동양의 도시는 Nolli의 지도에서와 같은 ‘형상과 바탕(figure and ground)’의 명확한 이원대립적 형태로 구분되지 않으며, 늘 건축물과 길 사이에는 마당이라는 중간영역이 존재하는 ‘重層的 구조’(文彦, 1980)이며, (〈그림 5〉 참조) 이는 앞서의 논리대로 하자면 三元的 景觀구조로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환경구조는 집의 대청(방과 방 사이)이나 마당(집과 길 사이)으로 대표되는 제 3의 공간의 개입에



(그림 6) 조선조 종로의 중축적 경관성(자료 : Asiatic Society, 1902 발행 한성복지도)



(그림 7) 한국의 3원적 도시경관의 단계별 구조(자료 : 필자작성)

의해 ‘대조적 이원구조’ 보다는 ‘융합적 삼원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마루(宗)’, ‘마당’ 등은 가족이나 문중 간의 제사, 혼인 등 공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공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의 이원적 도시공간(북촌과 남촌)의 경계영역인 종로 같은 곳에서는 行廊과 假家, 行랑뒀골목(避馬洞길), 좌우행랑 뒤에 평행하게 조성된 細川 및 당시의 대표적 위락공간인 開川(청계천) 등 이와 인접한 重層的 구조의 매개공간들과 함께 중심공공영역의 융합적 경관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6) 참조). 즉, 이러한 규모단계별 경관구조는 결과적으로 함께 전체 도시경관의 부분과 전체에 일관된 連鎖的, 重層的 三元構造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과거 이희봉(1976)은 이러한 한국적 공간구조

를 본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쇄적 안팎구조’로 설명한 바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음양의 이원론적 사고에만 한정됨으로 해서 ‘안’과 ‘밖’을 매개, 통합시키는 제 3의 중간영역의 존재를 간과한 한계를 갖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대청, 마당, 뒷길, 큰길로 이어지는 한국적 융합공간은 주로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사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간이며, 최근 하버마스가 모더니즘적 폐쇄성의 대안적 개념으로 제시한 ‘의사소통적’ 공간(최병두, 1991에서 재인용)과 상통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식에 의해 한국의 도시경관은 이원구조를 극복하는 인간중심의 삼원적 세계관에 의해 도시경관의 총체성 또는 장소성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경관 상의 이원성, 다원성은 현대 서

울의 도시공간에서도 어느 정도의 연속적 慣性을 갖고 나타난다고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江北'과 '江南'의 사회성과 경관성은 조선시대의 '북촌'과 '남촌'을 역전시켜 확대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러한 강남북의 경관적 이원화의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강남북의 경계공간인 한강의 경관적 공공성 회복을 통하여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도들(김진애, 1991)은 그 구체적 시안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앞서의 연구내용과도 부합되는 면이 있다 할 수 있다.

주목하여 볼 것은 前時代에 있어 이원적, 다원적 도시경관을 중간영역적인 상업가로와 공공시설들이 융합시켜 하나의 유기적으로 통합된(관계성을 갖는) 도시경관을 형성했다고 볼 때, 현대의 보다 이질적인 이원적 도시경관(오래된 것과 새것, 상업성과 토속성, 기계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내지 다원적 도시경관(여러 계층의 분화된 거주지역 및 활동공간; Ley, 1983)의 중층적 융합도 이러한 중간영역의 부각과 이들의 체계화에 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현대의 도시경관은 특히, 근대주의적 지역지구제(zoning)에 의해 다원화된 도시 내 각 부분들 간에는 서로의 관계성을 상실하고 '분리된' 이질적 도시경관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경계공간인 길공간은 대부분 특징적 활동과 의미가 결여되어 무성격한 공간으로 전락해가고 있다(Trancik, 1986). 이에 대해 Rowe와 Koetter(1975)는 두 시대의 도시경관 또는 각 사회집단의 이익이 충돌(collision)하는 경계영역의 경관적, 의미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러한 경계지역들을 중심으로 제 3 성격의 도시공간을 중첩(collage)시킴으로써 보다 융합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낼 것을 제안한 바 또한 있다.

## V. 결 론

근대 이전 동서양의 대부분의 도시들의 모습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반영이라는 것은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서양과 동양은 현저한 세계관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보이는데, 서양의 세계관이 분리적, 대립적 이원론에 기초한 것에 비해 동양의 세계관은 보다 가변적, 상보적 이원론 즉, 음양적 사고가 그 근저가 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동양의 상호보완적 이원론의 세계관은 사실상 관계의 철학이자 관계의 융합을 지향하는 철학으로 이러한 이원성의 융합을 위해 언제나 제 3의 중간적, 매개적 개념을 등장됨으로 해서 삼원론적, 다원론적 세계관으로 발전해 나가며, 이러한 제 3의 개념에는 '天地人'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것과 같이 언제나 '인간'의 위치가 그 중심으로서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삼원론적, 다원론적 세계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시경관에 있어서도 부분과 전체를 일관하는 원리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인다. 즉, 집의 차원에서 내부공간(陰)과 마당(陽)의 사이에는 중간영역인 '대청(中)'이 존재하며, 집(陰)과 외부도로(陽)와의 사이에는 '마당(中)'이 중간영역으로, 도시의 차원에서는 북촌(陽)과 남촌(陰) 등 대조적 도시 부분의 사이에 '종로나 청계천(中)' 등 공공 상업가로나 공공적 자연경관요소가 융합적 역할을 해왔다. 결국, 이러한 도시경관의 이원적 세계를 융합하는 제 3의 경관요소는 언제나 양자의 경계부에 위치하여 사람들 사이의 '만남'의 중심공간이 됨으로서 도시 전체를 융합시켜 하나의 장소성을 갖는 총체적, 중층적 도시경관을 만들어 왔다고 보인다.

현대 한국의 도시경관은 물론, 가치체계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동일한 개념체계로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지역적 기반과 문화를 공유하는 특정 도시라는 것은 변화의 양 만큼 경관적 慣性, 즉 지속성을 갖으며, 시대변천 중에서도 반복적 확산, 혹은 逆轉의 형태를 보인다. 그럼으로써 해서 이러한 한국 도시경관 고유의 특성은 현대 도시경관의 해석에도 부분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국내문헌〉

1. 권태훈 구술, 정재승 엮음(1989) 「천부경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 정신세계사.
2. 김용옥(1985)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3. 김용운, 김용국(1984) 「동양의 과학과 사상」, 일지사.
4. 김지하(1984) 「밥」, 분도출판사.
5. 김진애(1991) 「서울성」, (주)서울포럼.
6. 대구시(1973) 「대구시사」.
7. 류동식(1975)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 출판부.
8. 박시익(1992) 「풍수지리와 현대건축」, 기문당.
9. 법성(1992) 「해제」, 선우도량 편(1992) 「가려뽑은 아 함경」, 선우도량.
10. 서울시(1977, 1978) 「서울육백년사」(제1권, 제2권).
11. 성인수(1983) “동양의 입체오행사상을 통하여 본 세계관과 건축공간배치에 관한 가설”, 대한건축학회지, 27권, 113호.
12. 윤재근(1993) 「동양의 미학」, 도서출판 등지.
13. 이강훈(1989) 「한국건축에 있어서의 음양공간의 질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4. 이규목(1982) “도시경관의 구성이론에 관한 시각적 고찰”, 「국토계획」, 제17권, 제1호.
15. 이규목(1986) 「도시상징성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6. 이규목(1987) 「한국건축의 한국성에 관한 하나의 가정: 상보적 이원구조」, 「공간」, 1987, 12월호, pp.126-129
17. 이규목(1992) “도시경관의 분석과 해석에 관한 제문제”, 「대한건축학회지」, 제36권, 제1호.
18. 이몽일(1991) 「한국풍수사상사」, 명보문화사.
19. 이희봉(1976) 「전통건축의 구조주의적 해석」,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전주시(1983) 「전주시사」.
21. 최병두(1991) 「한국의 공간과 환경」, 서울, 한길사.
22. 최창조(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 〈중국 및 일본문헌〉

23. 張光直 저, 이철 역(1990) 「神話, 美術, 祭祀」, 동문선.
24. 周公 저, 이해철 역(1982) 「周禮考工記(抄)」, 국토개

## 발원.

25. 文彦 外(1980) 「見えがくれする都市」, 東京, 鹿島出版社.
26. 山田慶兒(1964) “중국 우주론의 형성과 전개”, 김영식 편(1986) 「중국 전통문화와 과학」, 서울, 창작사. pp.137-165
27. 保坂陽一郎(1984) 전경돈 역(1991), 「境界의 형태」, 도서출판 집문사.
28. 黒川紀章 저, 편집부 역(1986) 「길과 건축」, 도서출판 국제.
29. 黒川紀章(1978) 윤정섭 역(1988) 「도시디자인」, 건우사.
30. 酒井忠夫 저, 최준식 역(1990) 「도교란 무엇인가」, 민족사.

## 〈구미문헌〉

31. Broadbent, G. (1990) *Emerging Concepts in Urban Space Design*, London, Van Nostrand and Reinhold Co. Ltd.
32. Burke, G. (1976) *Townscapes*, N.Y., Penguin Books Ltd.
33. Cloke, P., C. Philo, and D. Sadler(1991) *Approaching Human Geography*, N.Y., The Guilford Press.
34. Cullen, G.(1971) *The Concise Townscape*, London, Architectural Press.
35. Lee, Kyu-Mok and Kim, Han-Bai(1992) “Mandala as a Design Principle”, ‘92 *IFLA Proceeding*, pp.206-212.
36. Ley, D. (1983) *A Social Geography of the City*, N.Y., Harper and Row Pub.
37. Meinig, D.W. edit.(1979)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 N.Y., Oxford Univ. Press.
38. Needham 저, 이석호 외 2인 역(1986) 「중국의 과학과 문명(II)」, 울유문화사.
39. Pokert, M.(1974) “음양개념의 분석”, 김영식 편(1986) 「중국 전통문화와 과학」, 서울, 창작사. pp.183-202
40. Relph, E. (1987) *The Modern Urban Landsca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41. Rowe, C. and F. Koetter(1975) *Collage City*, Cambridge Mass, MIT Press.
42. Tuan, Yi-Fu(1974) *Topophilia*,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43. Tuan, Yi-Fu(1977) *Space and Place*, Univ. of Minnesota Press.